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상호문화 관점의 수용

Accepting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for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박 성 우 (Seong-Woo Park)*

목 차

- | | |
|-------------------|---------------------|
| 1. 서론 | 3.1 상호문화의 개념 |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2 상호문화의 구성요소와 정책 |
| 1.2 선행연구 | 4.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분석 |
| 2. 다문화주의 사회통합과 비판 | 4.1 국내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
| 2.1 사회통합 | 4.2 상호문화 관점과 다문화서비스 |
| 2.2 다문화주의 비판 | 5. 결론 |
| 3. 상호문화의 의미와 정책 | |

초 록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에서 취해야 할 철학적 관점을 새로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심화된 문화의 이분법적 사고체계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상호문화 담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sser가 제시한 사회통합의 과정은 개별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사회 시스템에 포섭되고,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간의 화학적 반응을 설명한다. 이러한 Esser의 입장은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 공공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을 Castles의 이주자 대상 정책 모델 분류를 기반으로 나누어보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Mall의 상호문화철학을 준거로 하여 공공도서관이 사회통합에서 가지는 역할과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을 Esser의 사회통합의 틀을 통해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ed to provide new philosophical perspective to be taken in the public libraries as an institution which should support the social inclus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As deepening on dichotomous system of culture in modern society, It is referred to the need for an intercultural discourse on multicultural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ies. Th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suggested by Esser indicated the interactive transformation between actors and society. The conception serves the standard perspective on immigrants. Accordingly, This research analyzed a multicultural program of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policy about immigrants by Castles. And it is based on the intercultural philosophy of Mall, It suggested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in social integration and the process to support immigrants through the framework by Esser.

키워드: 다문화서비스,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사회통합, 공공도서관
Multicultural Services,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ism, Social Integration, Public Libraries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culturepark@gwangju.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8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71-392,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3.371]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주류와 비주류 혹은 자아와 타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체계는 개인가치의 탈가치화와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교통, 정보, 통신 및 기술의 발달은 상품 및 인적자본의 국제적 이동, 즉 지구화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일상생활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접촉의 기회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지구화라는 명목 아래 선진 자본주의의 주류 문화화와 그 밖의 비주류 문화의 주변화의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체계가 더욱 공고화된다.

지구화로 표현되는 다양한 인력의 이동과 이주는 Simmel(2005)의 방랑과 이방인에 대한 의미적 해석을 낳게 한다. '방랑'이 기존의 모든 공간적 지점으로부터의 분리로서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면, '이방인'은 오늘 와서 내일 가는 그러한 방랑자가 아니라 오늘 와서 내일 머무는 그러한 방랑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방랑자는 잠재적 방랑자로서 그는 비록 더 이상 이동하지는 않지만 오는 것과 가는 것의 분리 상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방랑자이다 (Simmel 2005, 79).

같은 시대를 공유하는 우리들은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없는 잠재적 이방인들에 속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며 가지게 되는 우리의 이방인적 특질은 소속된 사회의 개방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한다. 이러한 개방성은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역할과 사회적 맥락에서 관계를 맺는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회개방성은 이방인

들의 수용에 대한 경제구조와 법률시스템에 의존한다. 사회개방성은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간의 차이와 다양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한 사회의 개방성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들의 다양한 사고, 신념 및 행동양식들이 상호간에 얼마나 투과되는 지에 달려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다문화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집단들의 상호작용 증가와 소통의 상호 연결망을 구축하고, 이렇게 형성된 다양한 연결망은 도서관이 상호간의 신뢰 향상과 공동체를 위한 호혜성의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박성우 2014, 199-200).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개인과 집단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장소와 공간으로써 개방성의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도서관의 철학은 지구화를 통해 구축된 다문화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도 결부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은 언어나 인종 등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삶의 다양성 증가와 함께 다양한 문화의 병존을 통한 공존이고, 이러한 공존의 목적은 사회, 문화, 경제, 법 등 모든 제도적 조화를 통한 더 나은 삶과 행복의 실현에 있다(김태원 2012, 180). 즉, 행복한 삶의 원천은 그들의 개인적 가치의 실현과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있다. 다문화현상에 접하여 도서관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도서관의 "모두를 위한" 철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도서관이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에 어떠한 차별 없이 문화적 공존을 위하여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의 철학적 당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서비스를 실천하는 도서관의 다문화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해석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현상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의 기존 연구는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특성을 반영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우리와는 문화적 토양이 상이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행 방안 또한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외형적으로 모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노지현 2012, 6).

철학, 정치, 사회,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다문화의 해석은 각각의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철학은 축적된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현대사회에 내재한 교조적 믿음과 참을 수 없는 관행들을 끊임없이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자하는 비판적 실천이다(Oksala 2007, 13). 특히 이러한 철학적 성찰을 통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반성과 상호문화라는 새로운 철학적 개념의 도입은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및 정체성의 변환을 가능케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상호문화의 담론은 거의 부재한 현실이다. 그러나 정책으로써의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보다 대화와 소통의 상호작용과 통합(synthesis)의 생산을 더욱 강조하고, 사회적 응집(cohesion)과 국가 시민의식과 같은 전체(whole)의 강화에 보다 강하게 기여한다(Meer and Modood 2012, 177).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문화철학을 도서관에 도입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본질을 되돌

아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및 사서가 가져야 할 상호문화에 대한 철학적, 정책적 이해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의 방향을 상호문화 정신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서비스의 상호문화 정책의 실행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¹⁾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문화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에 따른 도서관계의 다수의 주된 연구는 현장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서비스의 방법론과 연관되어 수행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도서관계의 다문화 관련 연구는 주로 도서관 현장에서의 서비스 및 실태 분석이라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중 다문화서비스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영미와 조인숙(2009)은 늘어가는 국내 이주민들의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서 도서관 서비스, 특히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IFLA의 다문화도서관 선언을 제시하여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문화도서관 선언에서 제시하는 4가지 핵심 서비스인 정보, 문해, 교육, 문화를 토대로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지식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에서 다문화에 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데 기여하였다.

해외의 사례와 국내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의 다문화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미정과 이미정(2013)은 지역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 현황, 특히 인천광역시 사례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이론적 해석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단일혈통주의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할 사회적기반시설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을 IFLA의 다문화도서관 선언 등을 근거자료로 삼아 기존의 서비스와 독립되거나 구별되지 않고 서비스 안에 융합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사례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항목을 분석한 틀을 근거로 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조용완(2008)은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핵심이 장서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IFLA의 다문화도서관 선언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있는 다언어 자료들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실제적으로 다언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이 주로 IFLA의 다문화도서관 선언 등 도서관계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로 현상 해석의 준거로 이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현황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 제안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기반으

로 이론적인 해석을 적용하고자 한 연구도 있었다. 다문화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 분석을 포함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McCatty(2008)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시발점 중 하나인 캐나다를 예시로,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에 이롭다는 다문화주의의 전제 아래 토론토 공공도서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언어 및 문해 능력의 개발, 정착지원서비스 지원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과 지속적인 서비스를 강조했다.

노지현(2012)은 다문화에 대한 의미적 해석을 통해 그 배경을 설명하고, 다문화 개념의 유동성을 지적했다. 특히 인종과 민족적 다양성 개념은 사회 내의 문화적 요소 중 하나일 뿐을 지적하며 관점의 해석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도서관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용해야 할 시사점을 설명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실정을 적용시킨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개발을 강조했다.

오해연과 김기영(2014)은 국내 다문화정책을 이주자들의 적응 및 사회통합(동화주의)과 문화적 다양성 보전(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의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인식을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여, 일반 대중에게는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 효과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등 두 가지 입장 중 그 효과가 전자에 더욱 크다고 하였다. 김기영과 오해연(2014)이 이후 이를 바탕으로 설문 및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여타 기관과 차별화된 공공도서관만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을 역설하였다.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2009)은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도서관과 한국도서관의 다문화정책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는데, 외국도서관의 경우 Castles의 이주자에 대한 국가별 사회통합방식에 따른 다원주의 모델, 동화주의 모델, 배제주의 모델 등 3가지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각 모델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의 도서관 정책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국내의 현황은 다문화서비스의 제공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류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황이 독일이나 일본 등의 배제주의적 시각에 가까우나, 도서관 현장 실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2009)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관별 다문화가정 지원체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의 역할을 도서관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다문화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해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방향과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타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도서관만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렇듯 일부 연구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의미적 해석과 정책에 따른 구분을 통해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 관한 분류를 시도하였으나 다문화가 갖는 본질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 논문은 없었다. 특히 상호문화와 상호문화주의에 관련된 도서관계의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다문화'에 대한 도서관계의 명확한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상분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다문화의 사회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고찰 및 연구에 대한 우선적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2. 다문화주의 사회통합과 비판

2.1 사회통합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이 만나 그 사이에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변화시키는 행위, 즉 문화접변은 인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문화접변은 복수의 문화를 전제하며, 이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시발점이자 사회통합의 단초라는 점에서 연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다문화는 '다문화성(multiculturality)'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측면에서 명확한 개념적 구분을 가지게 되며,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후자의 관점은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는 암묵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다문화성(multiculturality)'이란 한 사회 속에 소수 민족, 같은 지역 출신의 이주민 그룹, 토착민(indigenous people) 등 다른 문화를 지니는 여러 그룹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여러 문화가 병존하는 사회적 현상을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Kymlicka 2009, 335). 그러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사회학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식을 일컫는 개념으로, 다문화라는 상위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해석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치적 관점의 다양성에 따라 그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McLaren(1995)은 다문화주의를 보수적, 자유주의, 좌파-자유주의 그리고 비판적 혹은 저항적 다문화주의로 4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보수적 다문화주의는 서유럽의 식민지나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단일 언어를 중심으로 주류문화를 통한 공통적인 문화 구축에 주요 관심사를 갖는다. 보수적 다문화주의에서는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명확한 계층적 구분을 전제로,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에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해 준다.

둘째,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모든 인종집단들이 지적 동일성에 기초하여 자연적으로 평등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회, 문화, 교육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문화, 사회, 경제적 제약은 상대적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 수정되거나 변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주류문화의 사회·정치적 공동체의 합법적 규범에 의해 통치되는 상황에서 자기민족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보편적 인본주의를 해칠 수 있다.

셋째, 좌파-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다.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들 간의 중요한 문화적 차이를 말살시키며, 인종, 계층, 성 등의 개성과 차이를 방해한다. 이는 주류, 비주류 문화 간의 차이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인종 간의 평등이 오히려 문화적 차이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입장이다. 그들이 말하는 차이는 역사, 문화, 혹은 힘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본질이라는 것이다.

넷째, 비판적 그리고 저항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좌파-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사회적 변

형에 대한 개혁의 한계를 비판한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하며, 다양한 사회적 이론적 토대에서 기호(signs)와 의미작용(significations)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아래 McLaren의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저항으로부터 기인하며, 다양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문화 비판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또한 차이의 개념은 역사, 문화, 힘 그리고 이념의 산물이며, 집단 간의 차이는 단지 생산성의 특수한 조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 시각의 차이는 '주의(-ism)'의 관점을 내포하며,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의 대립의 가시화와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라는 상위 개념 아래 존재하는 정치적 해석의 하위 개념으로 '다문화' 개념과 별개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문화는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하나의 사회 안에 각기 다른 집단들이 형성해 낸 문화가 혼재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광의적 의미로는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다른 인종, 다른 문화적 배경, 성별이나 연령, 계층적인 귀속감 등과 관련 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Kymlicka 1995, 9-14).

다문화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통합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전체에서 부분들의 결합이며, 각각의 환경에서 통합 혹은 분리된 사회적 단위들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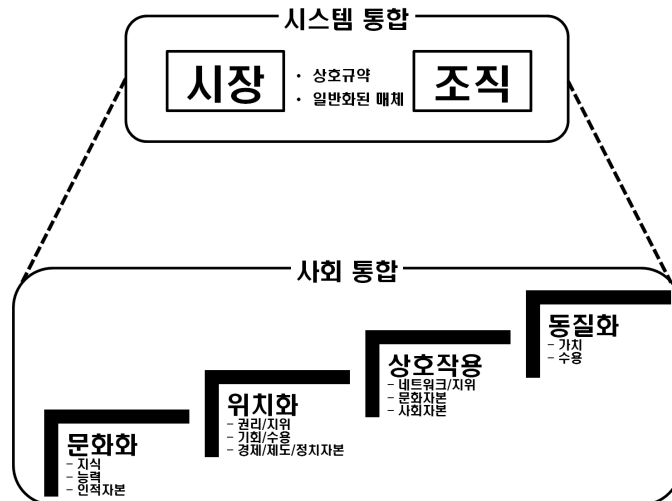
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Esser(2002)는 통합을 시스템 통합과 사회적 통합으로 <그림 1>과 같이 구분하였다.

시스템 통합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동기나 개인적 행위자들의 관계와는 독립적인 사회 시스템 요소들의 상호관계이다. 이 구조는 시장 안에서 조직들이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조직 내 개인들에게 상호간의 규약과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를 통해 시스템 통합 내의 관계를 암시 및 공유시키고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 도식은 비록 개별 행위자의 관계와 독립되어 있을 지언정 그 내부를 구성하는 개인이 관계를 관통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시스템 통합의 모든 과정과 관계에는 사회통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사회통합은 사회시스템의 단순한 표면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혹은 전체 시스템의 사회적 맥락에서 개별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개별 행위자들이 이를 통해 사회에 포

합되는 관점에서 문화화, 위치화, 상호작용, 동일화의 통합과정으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화(kulturation)는 행위자의 성공적인 사회화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skill) 같은 지적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다. 사회 내 일반적 행위과정에서 활용되는 핵심적 상정에 대한 지식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행위 절차에 대한 습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 이전의 과정이다. 지식과 기술이라는 2가지의 인적자본은 개별 행위자들의 사회적 위치 정립과 상호작용 및 활용을 위하여 함양된다. 즉 문화화는 행위자가 다른 문화와 접촉으로 인한 문화변용 혹은 적응을 의미하는 인지사회화이다.

둘째, 위치화(plazierung)는 행위자가 사회적 위치에서 가지는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통합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권리에 대한 공식적 확보로써 국적, 선거권과 같이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적 수용성을 의미한다. 여



<그림 1> 시스템 통합과 사회 통합의 영역(Esser 2002)

기에서 전단계의 인적자본은 위치화의 결과의 질을 결정하는 필터로 기능한다. 즉, 위치화란 문화화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이익에 대한 권리의 표현으로 제도적 혹은 정치자본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셋째, 상호작용(interaktion)으로, 사회적 행동의 특별한 양태로써 지식과 상징에 대한 개별 행위자들의 상호 지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행위에 관해서는 관계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상호작용은 문화화 및 위치화 다음에 이루어지면서 전단계 행위양태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행위자들의 접촉기회를 강화시킨다. 이는 행위자들의 협동에 관련된 것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되는 문화자본과 사회망 통합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사회자본이 이 과정에서 결과물로 나타난다.

넷째로 동질화(identifikation) 즉 정서적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사회 시스템에서 행위자의 동질화는 개별 행위자가 자기 자신과 사회 구조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와 함께 동질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이는 개별 행위자와 사회 시스템 사이에 구축되는 정신적·감정적 관계로 전체성 혹은 집합성에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국가적 자부심이나 회사 혹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이러한 동일시의 양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과정은 어느 한쪽을 '동화(assimilation)'시키고 하위로 포섭시키는 관점이나 다문화주의의 단순한 병치(併置)적 인정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와 사회 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내적인 화학적 변용의 의미로 나아간다. 단순히 개별 행위자를 사회 시스템에 복속시키는 동일화가 아닌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자발적

인 참여와 동조를 전제하는 사회통합의 과정은 다문화를 사회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2.2 다문화주의 비판

Kymlicka(2009)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성(multiculturalism)'이란 한 사회 속에 소수 민족, 같은 지역 출신의 이주민 그룹, 토착민(indigenous people) 등 다른 문화를 지니는 여러 그룹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여러 문화가 병존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과는 구별해야 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위와 같은 소수그룹들의 권리에 대한 인정(認定)의 정치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인정의 정치가 의미하는 바는 주류 공동체가 이주민과 소수자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주류 공동체와의 문화적 규범과의 차이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 권장되고 보호되나, 다른 한편에서는 분리와 차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위험성을 수용해야 한다(Wood 2010, 23). 이러한 다문화주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론은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한준성 2010, 295-297).

첫째, 다문화주의 규범은 서구 헤게모니의 표현이며, 문화적 제국주의이론으로 불리우며, 다문화주의 규범 형성 과정에서 힘의 우위를 앞세운 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뜻한다. 둘째, 다문화주의는 타자화(othering)를 강화하는 이유로 비판받으며, 인종집단 간에 위계를 강화시키고 타자(the other)를 다르고, 의존적이고, 자립력을 결여한 존재로 정형화한다는 점이다. 셋째, 다문화주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적용될 뿐이며, 다문화주의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나,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후기 식민지 국가들에게 이식될 수 없다는 점이다. 넷째,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것이다. 문화적 상대주의로서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경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어렵게 하며, 집단 내의 현존하는 차별과 억압을 그대로 방관하게 된다는 약점을 드러낸다. 다섯째, 집단의 문화가 성원의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을 뜻하는 문화적 본질주의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포괄성은 집단 내 보수 지도층에 의해 전용됨으로써 반인권적인 관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여섯째, 다문화주의가 재분배(redistribution)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며, 다문화주의는 상징적 인정(symbolic recognition)에 치중할 뿐, 물질 자원 및 정치권력의 분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라 명명되며,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만을 인정할 뿐 물질적 재분배 혹은 정치적 권한 이양(empowerment) 등 보다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억압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과 연관된 문제로, 다문화주의가 정치적 민족주의 혹은 애국심과 관계가 있다는 견해이다.

그동안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각국의 시간적 상황에 따라 무정책, 초청노동자정책, 동화정책, 다문화정책 그리고 상호문화정책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최종적 대안처럼 인식되었던 다문화정책 또한 문화에 대한 분리 및 차별을 불러옴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근래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상호문화정책은 이에 대한 새로

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정책과 상호문화정책은 이주자의 문화 다양성을 보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 다양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성(multiculturality)'과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이라는 구분되는 개념적 전제를 가진다.

3. 상호문화의 의미와 정책

3.1 상호문화의 개념

문화의 다양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경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 극단적 입장이 존재한다. 일 국가 내지 하나의 민족 혹은 종족을 경계로 하여 상정되는 단일문화와 지구화라 불리는 상황 속에서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 상품의 경계를 초월한 이동, 폭발적인 이주현상으로 인한 국가, 민족, 종족 등을 중심으로 설정된 문화적 경계가 가지는 의미가 극히 축소된 초문화이다. 이러한 두 극단 사이에 '다문화성'과 '상호문화성'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최현덕 2009, 305-307).

앞서 언급했던 다문화성과 달리,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이란 단지 구조적이거나, 추상적 혹은 혼합적 관념이 아니며, 하나의 문화가 전체 인류를 위한 유일한 문화가 될 수 없다는 확신과 통찰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념이 철학, 진리, 문화, 종교 등과 같은 용어의 보편적 적용을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우려이며, 상호문화성 개념이 해체하는 것은 획일적, 절대적,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사유란, 유럽중심주의이거나 증화주의이건, 아

프리카중심주의이건 간에 모든 종류의 중심으로부터의 해방의 과정을 뜻한다. 상호문화적 정신은 다원주의 다양성의 차이를 가치로서 인정하지만, 통일성의 결핍으로 보지 않는다(Mall 2000, 14-15).

자아와 타자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자아 중심 혹은 타자중심의 양극단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힘의 논리에 근거한 자아와 타자의 구분은 강자의 문화와 약자의 문화로 구분하는 행위이며, 자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두고 타자를 주변에 두는 이분법적 체계로 귀결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상호문화성은 다른 문화 간의 이해에 관한 문제를 동일성이라는 한 극단과 비교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이라는 두 다른 극단사이에서, 유사성 해석학이라는 제3의 길을 제안한다(Mall 2000, 14).

동일성의 해석학에 따르면, 낯선 자를 자기 화해버릴 경우, 낯선 자를 그의 고유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되며, 또한 다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비교불가능성에 빠져버린다면, 낯선 자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중복성(overlapping)에 의거하여 상호간의 이해의 기반으로 삼고, 첫 단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Mall 2000, 16-17).

이에 Mall(2000)은 어떤 하나의 문화를 절대적 일반성의 위치에 두고서, 다른 문화들을 그 절대적인 것의 부분적인 형태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구체적인 문화적, 역사적 주체를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의 보편적 해석학적 주체는 없다고 본다. 유사성의 해석학, 즉 중복성을 찾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다른 주체를 환원하지 않은 채, 성찰적이고 매개적인 태도

로 그를 동반하는 것”(Mall 2000, 16), 즉 상호문화적 이해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3.2 상호문화의 구성요소와 정책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multi-)’는 동일한 영토에서 살고 있거나 같은 제도나 기관에서 학습대상이 되는 상이한 문화들의 ‘차이의 인정’적 측면을, ‘사이(inter-)’는 상이한 문화들의 ‘상호작용과 공공성’을 강조한다(김태원 2012, 199). 이에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는 평등의 상호관계, 만남 그리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귀결된다(최현덕 2009, 314-315).

첫째, 상호문화주의에서 접두사인 ‘상호’(inter)는 무엇보다도 관계에 관한 개념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이에 문화 간의 만남에 있어서 모든 문화는 각기 주체이며, 힘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둘째, 상호문화성은 만남에 관한 개념이며, Inter는 또한 사이를 함축한다. 사이는 만남의 열린 공간으로 규정되며, 서로가 아직 규정되지 않는 상태 혹은 판단되거나 정의되지 않는 상태로 만나는 공간으로써, 익숙한 것, 확실한 것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사전에 일방적으로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것이 만남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이다.

셋째, 상호문화성 개념은 상이한 것들의 단순한 병존을 넘어서는 그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함축한다. 서로가 만나서 상대방을 인식하고, 또 상대방을 통해 나를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며, 서로 변화를 시키는 것,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서로가 함께 참여하는 보편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별구성원의 행위자들은 새로이 머무는 공간에 단순히 머무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가치의 촉발자이며, 새로운 초국적 사회공간을 만드는 존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양한 문화들이 병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다양한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각 문화의 주체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제각기 계도화되어 갈등의 잠재력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현덕 2006, 328).

상호문화정책은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며, 다문화정책의 실패는 과거의 격리정책이나 동화정책으로 회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요구한다. 상호문화정책은 다문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사회공간적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를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능동적으로 함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대안은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가로질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남과 상호행동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병두 2014, 92-94).

특히 이러한 상호행동을 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 능력은 특별한 학습과정, 즉 상호문화의 경험, 상호문화적 학습, 상호문화적 이해를 통해 상호문화적 행위로 귀결된다(김태원 2012, 198-199). 이주자들에게 본국의 생활공간은 제1공간에 해당하고 이주국에서의 생활공간은 제2공간에 해당되며, 이들은 공간적 전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제3의 공간에서 상호주관적 영역을 구성하며, 이 공간은 상징이 융합되는 곳이자, 타자들 사이의 동일시 영역이 된다. 이러한 제3의 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타인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제도와 도덕, 윤리와 같은 행위의 지침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3의 공간은 동질성의 통합이 불가능한 공간이라기보다 상징적 공간이자, 생산적이며, 실천적 영역이고, 현실적으로는 의미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탄생의 공간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행위가 조절되고 구성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주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확신을 얻게 하는 곳이다(김태원 2011, 46).

4.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분석

4.1 국내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다문화도서관 모두’에서 2011년에 펴낸 『도서관에서 다문화를 만나다』에 수록된 9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17개 프로그램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에 펴낸 『작은도서관 다문화 운영을 위한 핸드북』에 수록된 9개 작은도서관 27개 프로그램, 총 45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책에 수록된 프로그램 내역 중 맥락상 프로그램이 유사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Castles(1995)의 관점을 활용하였다. Castles는 이주와 문화 다양성에 따른 국가의 구분을 완전 배제 모형, 차별적 배제 모

〈표 1〉 다문화 정책의 비교(Castles 1995)

	차별적 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전제	영구적 거주 불허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및 용인		
과정	사회 영역 일부만 이주자 개입		이주자의 주류 문화에 대한 일방향적 적응	이주자 개인의 정체성 용인	
정책	엄격한 노동정책	노동정책 부재	자문화 중심 교육정책	자유방임적 정책방향	국가개입적 정책방향
영향	민족과 계층의 상관관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합리		극복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방입 및 인종주의	계층·인종·민족 따른 차별	-
결과	사회 분열 및 갈등		민족적 정체성 기반 집단 증가	-	
국가 모델	민족적 소속감 기반		문화·정치적 커뮤니티 기반	다원주의 기반	

형,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등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완전 배제 모형은 1945년 이후 자취를 감추었기에 3가지를 핵심적인 분류의 대상으로 삼았다. 차별적 배제 모형은 국가의 노동력 필요 혹은 망명 허용에 따른 이주자의 일시적 거주를 기반으로 하므로 노동 시장과 같은 사회의 특정 영역에만 이주자의 개입을 허용한다. 따라서 이주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공식적으로 고용하고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이주자 대상 노동정책을 부재시킴으로써 불법 이민을 장려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경우 이주자들은 시민과 비시민 사이의 엄격한 구분과 귀화 거절 등의 법적인 제약과 인종주의 및 차별 등의 비공식적 행위 등을 통해 민족과 계층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합리를 겪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사회 분열 및 갈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동화 모형과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와는 달리 이주자를 사회에 포함시키고 용인하는 것을 그 전제로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이주자 개인과 주류 사회 구성원이 구분되지 않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시키는지, 아니면 이주자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주류 사회 구성

원과 구분되도록 하는 지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동화 모형에서는 이주자 아동들에게 일반 학교 출석과 자국 언어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적응과 주류 문화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국가의 주요 역할로 본다.

다문화주의 모형의 경우 차이는 용인하되 민족적 정체성 유지를 지원하는데 국가의 역할이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과,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회적 행위 양상과 제도적 기반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가 별다른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후자의 경우 다문화 교육 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다문화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국가 재정에 대한 제약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자 및 외국인 관련 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또한 만민에 대한 포용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이주자를 일부 사회 영역에서 배제하는 개념은 도서관의 목적 및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성 양면에 있어서 나타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차별적 배제 모

형을 제외하고 실제로 동화 모형 및 다문화주의 모형 등 2가지로 분류가 진행되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속하는 이주자들의 사회적 지원이다. 이 중, 한국 문화를 단방향적으로 이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동화 모형으로, 타국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문화적 차이를 전제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초점이 주류 문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자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시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전자의 경우 주요 대상자인 이주자,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 등을 알려주는 자문화 중심의 교육 형태를 띠고 있어, Castles(1995)의 분류에 따른 동화 모형의 중심 정책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누구이나에 따라 특징적으로 다양하게 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다문화주의 모형의 두 가지 갈래 중 자유방임적 정책방향보다 국가개입적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다. 국가개입적 정책방향은 전술했듯 이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주류 사회 구성원들이 용인하는 것과, 이들을 위한 사회적 행위양태 및 제도적 기반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포한다(Castles 1995, 301). 따라서 이러한 방향을 내포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는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분류한 결과물이다.

동화 모형으로 분류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1세대 이주자를 핵심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도서관 이용 이주자가 주로 결혼이주여성인 만큼 이들의 사회적 역할 및 어

려움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동화 모형 입장의 프로그램은 주로 기초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언어 교육, 아동 양육에 필요한 엄마로서의 부모 교육, 한국에 대한 문화 교육 등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프로그램에서 혼종되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안내한다는 언어 교육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이주자를 보는 관점(이주자로서의 외국인 이용자/어머니로서의 외국인 이용자)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하는 다문화주의 모형 입장에서의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참여와 지원을 독려하는 프로그램,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내국인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 다문화를 주제로 이주자와 내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은 이주자 입장에서 이주자 가정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어려움 해소를 세부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 활동 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지는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 이에 따라 참여를 독려하며 '다문화성'을 전제하고 있다.

내국인에게 다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타국의 문화'를 주제로 한 소개 프로그램으로, 주로 이주자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이들을 통해 직접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내국인들에게 내포시키고자 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표 2〉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분류

도서관명	프로그램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결혼이주 여성 참여 및 지원	다문화 소개	아동 대상 다문화 함양	가족 참여
김해 다문화도서관	찾아가는 다문화 북스타트		√			
	그림책 읽는 엄마	√				
느티나무도서관	여러나라 책 읽어주기			√		
대구광역시립 동부도서관	다문화가정 방문 독서교육 프로그램	√				
	자기나라 동화책 읽기(내국인 대상)			√		
	영상으로 보는 다문화			√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	다문화 이웃이 들려주는 세계의 이야기			√		
	북 스타트 프로그램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다문화가정 아동 독서치료				√	
인천광역시립 중앙도서관	지식 배움터 프로그램				√	
	창의미술 프로그램		√			
청주 기적의 도서관	다국동화 오디오북 제작 및 배포		√			
다문화도서관 모두	함께 떠나는 엄마나라 동화여행			√		
	한글교육 프로그램	√				
	나만의 책친구				√	
	다문화언어학교				√	
강릉 로하스강릉 작은도서관	또래오래(도서관 다문화가정 보육지원)				√	
	가족앨범 만들기					√
순천 해룡농어촌 작은도서관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			
	나를 표현하는 미술놀이				√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과 한글교실	√				
안산 석수골 작은도서관	함께하는 세계문화				√	
	오리조리 맛있는 세계여행				√	
	도서관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	
원주 기차길 작은도서관	베트남! 너를 만나러 간다			√		
	그림책으로 배우는 다문화 독후활동			√		
	연극치료				√	
시흥 꿈나무 작은도서관	다문화동화극				√	
	하모니(전시-미술 연계 프로그램)					√
시흥 꿈나무 작은도서관	드림메이트				√	
	그림책으로 우리문화 배우기	√				
시흥 다문화 작은도서관	다문화 공연 프로그램			√		
	책연극놀이		√			
	동화구연배우기	√				
양산 물구나무 작은도서관	오리로 배우는 한국 문화책 만들기	√				
	올리블리 그림동화 상영			√		
인천 솔숲작은도서관	동요/시 노래 배우기				√	
	책연극놀이				√	
울산 전하작은도서관	다문화가정 주부의 생활 언어교실			√		
	청소년 대상 사진프로그램				√	
기타	리빙라이브러리			√		
	그림작가와 함께한 미술활동				√	
기타	어우름 가족독서캠프					√
	다국어 리플렛 제작		√			

특기할만한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내국인 가정의 아동과 이주자 가정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이들에게 성장과정에서부터 다문화성을 내포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이주자 가정이나 내국인 가정의 구분 없이 어울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거나, '다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동들이 함께 활동하며 차이를 받아들이는 프로그램들이다. 또 이주자 가정 아동들이 가정에서 직면하는 언어적·문화적 혼종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나타난다.

이 외에도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내국인 대상의 다문화 소개, 이주자의 어려움 해소, 아동 대상 다문화 함양 등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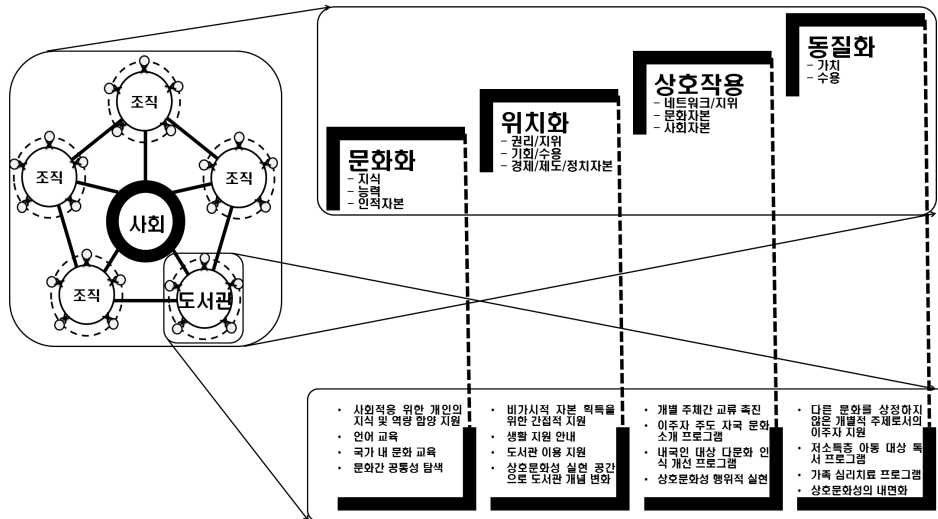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프로그램 대다수가 가진 공통적인 한계는 어느 한쪽의 문화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경향이 여실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동화 모형 입장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목적이 전제되며, 다문화주의 모형 입장에서는 '이주자 모국의 문화'를 알리거나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자의 정서적 문제 해결이나 아동 대상의 인식 차별 배제 목적 프로그램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문화를 그들의 출신 국가와 결부시켜 대상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4.2 상호문화 관점과 다문화서비스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다룰 때, 도서관 서비스는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 측면에서 기본적인 자유, 정보와 지식의 접근에의 평등성의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IFLA 2008). 앞서 김태원(2011)이 서술한 바와 같이, 제3의 공간이란 상징적 공간이자 생산적이며 실천적 영역이고 현실적으로는 의미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탄생의 공간이라 하였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공간이며, 사회구성원들의 행위가 조절되고 구성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문화의 복합체 공간으로써 제3의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즉 도서관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자국민과 이주자의 빈번한 면대면 접촉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개인 개발 및 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한다. 도서관은 Esser(2002)의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며 사회통합의 과정을 수행하는 조직임과 동시에, 제3의 공간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자들에게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즉 통합의 핵심적 단위이자 사회 행위자들의 활동공간으로써 도서관이 취해야 할 단계적 역할을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화는 성공적인 사회화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같은 지적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다. 도서관의 다양한 이주민의 프로그램은 사회적응을 위한 개인의 지식 및 역량 등의 인적자본에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언어 습득과 지적 능력 향상을 통하여 그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언어적 배양 능력은 자문화와



〈그림 2〉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관점에서의 공공도서관의 단계적 역할

다문화의 차이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성을 찾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언어습득은 절대적인 동화정책으로 활용됨을 지양하고, 향후 다양한 언어의 사용과 활용을 통해 문화의 상호소통과 교류를 위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활용되어짐을 전제한다.

둘째, 위치화로, 이주자들이 직업이나 경제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법적인 위치를 보장받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기반으로 경제자본을 획득하고, 또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표현을 위해 제도적·정치자본을 획득한다. 도서관은 이주자들이 이러한 비가시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간접적인 지원은 한국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및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속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화를 거친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적자본을 더욱 심화하여 함양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것 또한 위치화에 속할 수 있다.

경제/제도/정치자본의 획득은 1차적인 문화화의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는 도서관에 대한 이주자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도서관을 '사이'의 의미를 전제하는 상호문화화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인식변환을 꾀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는 개별 행위자가 서로간의 지식과 상징을 상호 지향함으로써 서로간의 함의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사회적 행위를 포함한다. 도서관이 가진 공동체적 성질은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전 단계-문화화와 위치화-등을 통해 전제된 언어능력 및 적응정도를 기반으로 이주자 개인이 자기표현의 기회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범위가 이주자뿐 아니라 내국인으로 확장된다. 본격적으로 상호문화성에 대한 행위적 실현이 시작되는 단계로, 여기에서는 이주자들이 주도하는 자국의 문화 소개 프로그램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개

선 프로그램이 속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주자와 내국인은 도서관이라는 매개를 기반으로 서로간의 문화 간의 공통성을 찾고, 그 사이에서 차이를 발견해나가며 주·객체의 구분 없는 문화 간 교류를 실현하는 단초를 얻게 된다.

넷째, 동질화의 단계에서 이주자는 더 이상 사회 구조와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국가적 자부심이나 소속감 등을 느끼며 사회 시스템과 자신 사이에 정서적·집합적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른 이주자는 '다른 문화'라는 틀을 상정하지 않은, 하나의 주체이자 도서관의 이용자로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자신의 '다름'을 통해 겪는 모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단계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이주자를 '다문화성'을 배제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에 집중한 프로그램들이 속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 단계에서의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그 특질은 '문화적 다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서 그 해결방책을 찾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5. 결론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사회갈등과 개인들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적 구분은 행위자들 간의 의사

소통의 부재를 가져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은 사회적 맥락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관계와 관련된 사회통합의 역할을 위한 영역으로 존재한다. 특히 다문화사회에서의 통합은 문화의 경계와 관련된 것이며, 경계에 대한 초월적 개념의 완성은 개별 행위자 혹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소통을 통한 공통적 특성의 연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도서관의 기호학적 기의(記意: signified)는 '모두를 위한' 공유와 소통을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Simmel(1995)에 의하면, 이방인은 새로이 머무는 공간에 단순히 머무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가치의 촉발자이며, 문화적 혼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존적 인물이며, 새로운 초국적 사회공간을 만드는 존재라고 하였다. 또한 일상의 공간을 공유하는 타자이되, 새로운 세계의 지평 위에서 사회의 가치를 생산하고 객관화시키는 이질성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가치생산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잠재적 이방인이라는 보편적 특질을 고려하면, 이방인에 대한 발전적 시각의 관점은 주체로서의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방인적 특질을 통해 문화의 혼종을 통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가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적인 연구 분야로 인식되어야 하는 당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도서관이 실행하고 있는 다문화프로그램은 많은 부분에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적 정책의 입장을 취하는 선에서 그치

며, 문화의 틀을 배제한 채 개인을 인식하는 이러한 입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이 유럽과 북미 그리고 국내의 정치·사회·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호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자아와 타자 혹은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이들 간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자아/타자, 주체/객체 이분법적 분류의 경계는 상호문화를 통한 '너머'의 개념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즉 너머는 자아/타자, 주체/객체의 경계를 없애는 인식의 전환된 양태이다.

상호문화의 상호문화성 개념은 다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보다는 문화 간의 보편적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또한 상호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접촉은 자아와 타자의 구별 없이 상호를 주체적 존재로 인정함과 동시에, 상호 공존과 평화에 대한 실천적 행위를 위한 것이다. 문화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통은 단순한 경험과 학습을 넘어 이해를 통한 다문화적 행위로 귀결된다. 이러한 다문화적 행위는 도서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체계 형성을 위한 사명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새로운 도서관 이용자의 유입의 기회이며, 다양한 이용자의 유입과 활동은 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지표로 활용된다. 이주민들은 더 나은 삶, 즉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해 제1의 공간에서 제2의 공간으로 이주한다. 이에 나아간 도서관은 그들의 행복한 삶의 근원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또한 행복이라는 최고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제3의 공간이다. 즉 도서관은 이주민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탈가치화되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주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시스템의 한 단위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적 능력의 배양을 통한 문화화, 문화화를 통한 사회 내에서의 위치화, 이를 기반으로 한 개체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에의 자발적인 동질화 과정을 거쳐 사회 속에서 이들 이주민들이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기영, 오해연. 2014.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77-100.
- [2] 김영미, 조인숙. 2009.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3): 47-64.
- [3] 김태원. 2011. 한국적 다문화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16: 57-81.

- [4] 김태원. 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유럽사회문화』, 9: 179-213.
- [5] 노지현. 2012. 한국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 방향 모색: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27.
- [6]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2010. 『도서관에서 다문화를 만나다: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협력프로그램 운영사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7] 문화체육관광부. 2011. 『작은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핸드북』.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8] 박성우. 2014.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97-215.
- [9] 오해연, 김기영. 2014.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주민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125-145.
- [10] 이미정. 20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인천시 중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295-321.
- [11] 조용완. 2008.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429-456.
- [12] 최병두. 2014.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4(1): 83-118.
- [13] 최현덕. 2006. 『상호문화철학의 문제들』. 광주: 전남대학교.
- [14] 최현덕. 2009. 경계와 상호문화성 -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 과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66: 301-329.
- [15]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 개발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91-122.
- [16]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
- [17] 한준성. 2010.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월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19(1): 289-316.
- [18] Castles, S. 1995. "How nation-states respond to immigration and ethnic diversit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1(3): 293-308.
- [19] Esser, H. 2002. *Soziologie. Spezielle Grundlagen. Band 2: Die Konstruktion der Gesellschaft*. Frankfurt and Mein: Campus Verlag.
- [2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2008. *IFLA/UNESCO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 [21]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ism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황민

- 혁, 송경호 옮김.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서울: 동명사.
- [22] Kymlicka, W.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3] McCatty, J. 2008.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토론토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제공 방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2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8년 6월 26일, 경주: 경주교육문화회관: 59-99.
- [24] Mall, R. A. 2000. *Intercultural Philosophy*.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25] McLaren, P. 1995. *Critical Pedagogy and Predatory Culture: Oppositional Politics in a Postmodern Era*. London: Routledge.
- [26] Meer, N. and Modood, T. 2012. "How does Interculturalism Contrast with Multiculturalism?"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3(2): 175-196.
- [27] Oksala, J. 2007. *HOW TO READ FOUCAULT*. 홍은영 옮김. 2008. 『How to read 푸코』.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28] Simmel, G.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옮김. 서울: 새물결.
- [29] Wood, P. 2010. *Intercultural Cities: Towards a Model for Intercultural Integrat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Giyeong and Oh, Haeyeon. 201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Users on Multi-cultur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3): 77-100.
- [2] Kim, Young-Me and Cho, In-Sook. 2009. "A Study on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through the Public Library Homepag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3): 47-64.
- [3] Kim, Tae-Won. 2011. "Research Tendency of Multiculture in Korea and Exploration of New Direction." *Catholic Univ. of Daegu Journal of Humanities Science*, 16: 57-81.
- [4] Kim, Tae-Won. 2012. "Theoretical Exploration of the European Interculturalism as a Paradigm for Social Integration." *Yonsei Univ.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9: 179-213.
- [5] Rho, Jee-Hyun. 2012. "Toward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27.

- [6] Library of Moodoo. 2010. *Meet multiple cultures in Librar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1. *An operating handbook multicultural program in a small librar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8] Park, Seong-Woo. 2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Created in Public Libraries: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Jeonnam-Provi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97-215.
- [9] Oh, Haeyeon and Kim, Giyeong. 2014. "Perception of Local Residences on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125-145.
- [10] Lee, Mijung. 201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 focus on the Case of Incheon Jungang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295-321.
- [11] Cho, Yong-Wan. 2008. "Effective Ways for Acquiring Multicultural Materi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429-456.
- [12] Choi, Byeong-Du. 2014. "Transforming towards Inter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City Policy." *Daegu Univ.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4(1): 83-118.
- [13] Choi, Hyondok. 2006.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Philosophy, Its Concept and History." in *In Quest of Intercultural Philosophy*, 321-335.
- [14] Choi, Hyondok. 2009. "The 'Border' and Interculturality: Basic Assignments of Intercultural Philosophy." *PNU Humanities Institute Cogito*, 66: 301-329.
- [15] Han, Yoon-Ok, Kim, Soo-Kyoung and Cho, Mi-Ah.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Strategies of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91-122.
- [16] Han, Yoon-Ok, Cho, Mi-Ah and Kim, Soo-Kyoung.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135-160.
- [17] Han, Jun-Sung. 2010. "Debate on Multiculturalism: A Comparison of Brian Barry and Will Kymlicka." *SNU Journal of Korean Politics*, 19(1): 289-316.
- [21]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ism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Hwang, Min Kyok and Song, Kyung Ho ed. 2010. *Multiculturalism Citizenship*. Seoul: Dongmeongsa.
- [23] McCatty, Joan. 2008. "Strategies for Providing Multicultural Services to Children and Young Adults at Toronto Public Library." In *Proceedings of The 2th Anniversary Symposium of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59-99.

- [27] Oksala, J. 2007. *HOW TO READ FOUCAULT*. Hong, Eun-Young ed. 2008. *How to read Foucault*. Seoul: Wongjingsikhause.
- [28] Simmel, G. 2005. *Modeonity ilgi*. Translated by Kim, Duck-young and Yun, Mi Ae. Seoul: Saemulgyeol.